

■ 스티브 잡스 애플 CEO직 전격 사임 왜

# “직무 수행 못한다”... 건강 악화된 듯

애플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잡스의 사임을 발표하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정보기술(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세계가 잡스의 사임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세계 IT기업 가운데 최대가치를 자랑하는 애플의 CEO일 뿐 아니라 최근 혁신적인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글로벌 IT업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산업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잡스 사임 배경 놓고 추측 무성, 건강 악화? = 잡스의 사임 배경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그의 건강 악화 가능성이다. 잡스는 애플에 보낸 사임 서한에서 “만일 내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이로써 나는 애플의 CEO직을 사임합니다”라고 말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그의 건강 악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잡스의 전기가 당초 예정인 내년 3월에서 3개월여 앞당겨진 오는 11월 출간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도 잡스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온 적이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잡스가 애플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키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강과 관계없이 CEO직 승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고 적절한 승계 시점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잡스가 이사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이클라우드 저장 시스템'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24일(현지 시각) 애플의 CEO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 CEO직 승계 혼란 줄이기 주장도

### 이사회 의장직 유지... 후임엔 팀 쿡

회 의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당분간 애플을 '수렴정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잡스 이후 애플 단기간은 OK, 장기적으로 '글쎄' = 업계에서는 애플의 제품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스마트폰 아이폰5도 출시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잡스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애플의 수호신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당장 애플

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서는 잡스가 그동안 집단지배체제를 만들어 놓은 만큼 당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집단지배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잡스의 '아이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신들을 이끌 어온 잡스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애플에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분석했다. /연합뉴스



팀 쿡

또, 잡스의 뒤를 이어 CEO 자리에 오른 팀 쿡이 비록 '기업 운영의 천재'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조직을 이끄는 카리스마, 달인의 경지에 오른 제품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잡스의 천부적인 재능까지는 배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잡스의 부재가 어떤 형식이든 애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中 국산항모 2015년 취역할 수도”

### 美 국방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이 개조한 항공모함 바라그호를 시험 운항한 데 이어 빠르게 2015년에는 첫 국산 항모를 취역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예상했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의 군사력 실태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86쪽 분량으로 요약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사 장비 부문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좁혔고, 2020년까지는 근대화할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중국이 빠르게 올해 크기가 더자인 바라그호(배수량 약 6만7천)와 비슷한 첫 국산 항모를 만들기 시작해 2015년에 취역할 것이고, 앞으로 10년 내 추가로 다수의 항모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시험 운항을 마친 바라그호는 내년 말 취역할 수 있지만, 한동안 전투기를 실지 않은 채 연습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최소한의 실전 레베에 이르러면 수년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난 1월 시험 비행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쟈-20(J-20)은 고성능 제트 엔진 제조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2018년 이후에나 본격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민수용 및 군사용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중국발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군비 지출규모는 16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5500억달러(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제외)였다. /연합뉴스

## ‘도망자’ 카다피 고향 시르테 은신 유력

### 사막지대 또는 해외망명 가능성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잡힐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이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가 리비아를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자국내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가능성과 해외망명 가능성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아랍연맹(AL) 주재 반군 과도국가위원회(NTC) 대표부의 압델 모네임 알-후니는 카다피가 선택할 은신처로 3곳을 꼽았다. 사막지대인 알-주프라 지역에 숨거나 남쪽 니제르와의 국경지대의 트라젠 오아시스 지역, 아니면 그의 고향 시르테 중 하나이지 않겠

느냐는 것. 이 중에서는 친위부대의 거점 역할을 하는 시르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실제로 카다피는 지지기반이 탄탄한 고향 시르테 또는 트리폴리에서 남쪽으로 650km 떨어진 사막지역인 사바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사하라의 투아레그 부족을 포함해 다른 부족들 속으로 숨어들어 갈 수도 있지만 투아레그 부족 일부도 반군에 합류한 점으로 미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카다피가 지난 6개월간의 내전기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던 알제리로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외신의 추정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 등 외국으로 망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를 붙잡기 위해 리비아 반군들이 곳곳에 붙여놓은 현상 포스터. 카다피를 살이었거나 죽은 채로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17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정부, 北경유 가스관 사업 ‘신중 모드’

### 러 대통령 ‘남-북-러 특위 발족 합의’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생산 천연가스를 남한에 공급하려는 사업이 스토프라이트를 받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 협의를 위한 남-북-러 3국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사업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메드베

데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며 3국이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내놓은 것도 그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북러 양국의 이 ‘합의’ 공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25일 “2008년 이후 이 프로젝트는 진전이 없었다”고 전하고는 “그러다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므로 우리로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

했다. 2008년이라는 시점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이 가스공급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해다. 그 해 9월 이런 합의 이후 2009년 6월에는 공동연구협약(JSA)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구상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에 맞물려 수면 아래 잠복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스공사를 통해 가스프롬으로부터 북한의 입장을 포함한 최근 상황에 관해 정보를 파악한 뒤 다음 행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방러 김정일, 中 경유 귀국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네이밍구의 국경도시 만저우리(滿洲里)를 통해 중국으로 진입했다.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이날 오후 6시(중국시간)에 러시아-중국 국경을 건너 만저우리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게 목격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동쪽으로 달려왔다.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이다. 작년 5월과 8월에도 방

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은 불과 1년3개월 사이에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일단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귀국일정 단축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 간에 긴밀한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을 역행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귀국하려 하면 중국을 경유한 노선보다 거리를 1500km 이상 더 가야한다. 이동 시간도 20여 시간 더 걸린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길을 이용했을 때 제기

되는 경호 우려를 해소할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빈번한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가 여전히 긴밀하고 공조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을 양국 국민과 주변국에 보여주려는 계산도 중국 경유 노선을 택한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일단 하얼빈(哈爾濱) 또는 창춘(長春) 등의 동북3성 주요 도시에서 정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 경유’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그렇치 않고 본격적인 방중 행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 古家 고향의 맛

###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고가 약오리탕

**한/식/뷔/페**

6,000원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원비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점심특선

별미오리탕 6,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